

“순리와 상식에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죠”

호서대 총장

姜錫圭 박사

대담/朴澤奎 <건국대이과대학장/본지편집위원장>

겸손한 생각으로 살아가

선생님 반갑습니다. 공사(公私)로 바쁘신 중에도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중고교와 대학을 설립하셨고 현재 직접 설립하신 호서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데 학교 경영철학, 총장의 자세라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일부 대학총장, 대학교수 등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교수, 총장 수난시대였다고나 할런지. 너무 그런 것을 의식하면 건강에 나쁘지요. 학교 내부의 일들은 부총장에게 전달시키고 있어요.

일에 너무 집착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순리와 상식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는 기본자세를 갖고 교수들과의 인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겸손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교수 사회라는 게 특이 집단이고 구성원 각자의 자존심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인데 저마다의 생각대로 놓아두면 언젠가는 하나의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 하더군요.

맑은 물, 탁한 물(淸濁)을 함께 마셔야 큰 바다를 이룬다는 생각으로 미움의 감정을 마음속에서 추방시키고 있지요. 미워한다는 것은 선악을 가리는 것인데 원래 사람에게는



◇상식에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姜錫圭박사
(좌측)가 박택규본지편집위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선악을 가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런 자격이 없으면서 사람을 확률적으로 선과 악으로 가르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나는 원래 키도 작고 공학을 공부해서 따지기 좋아하는 성질에 신경질이 있는 단점이 있으나 교직원들이 잘 받아주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선생님, 어릴 때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소작농의 장남으로

충남 논산군 성동면 화정리 313번지에서 소작농의 6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집에서

도보로 7km 떨어진 논산 보통학교에 다녔지요. 부모님이 못배우셔서 답답하기에 큰아들은 공부시켜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에 힘입어 소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광활한 호남 평야를 끼고 있었으나 일본인들이 빼앗은 땅의 소작농 생활이란 정말 비참했어요. 빈민, 절량농가(絶糧農家)의 수가 아주 많았지요. 수확량의 반 이상을 빼앗겼었으니 추수후 잠깐동안만 쌀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내 체중이 50kg인데 체격이 왜소한 것도 이때 제대로 먹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8·15이후에 성장한 내 아우들은 체격이 늙름하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근 20리에 달하는 통학거리는 벅찼을



뿐만 아니라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느 해 봄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느날 어머니가 아침 진지를 드시지 못하고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도시락을 안갖고 간다고 어머니와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지만 요세 사람들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16세에 졸업했는데 일생동안 학교를 제대로 다닌 게 이때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보통학교 6년동안만 온전한 정규교육을 받았다고 겸손의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학교만 졸업하시고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지내셨는데 남다른 노력과 신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國卒에 고교교사로

보통학교를 졸업했으나 보고 듣는 게 거의 없는 벽촌에서 집은 가난하고 그래서 고향에 있으면서 강의력으로 공부했어요. 드디어 국민학교 교사시험에 합격, 3년간 충남 서산군 성연국민학교, 천안군 직산국민학교에서 3년간 근무했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교사자격시험도 1종, 2종, 3종 등의 등급이 있는데 1종시험까지 합격했어요. 경성사범의 경우 중학

5년과 연수와 2년을 합해 7년해야 1급자격을 부여했어요. 1종이 되면 중학교 2년까지 가르칠 자격을 주었어요. 국민학교 출신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로 승급되는 과정이 이랬어요. 강경여고, 대전공고에서 근무하다 해방이 되었고 해방후 상경하여 경동고 교사(수학, 물리담당)를 지냈습니다.

경동고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서울대공대 전기공학과에 입학하시게 된 것입니까?

34세에 서울대 입학

그렇습니다. 34세에 서울공대에 입학했으니 제자와 함께 동료로부터 배운적도 있었지요. 공대 2학년 역학시간이었어요. 2백여명이 합반강의를 받았는데 강의를 하는 교수의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던 목소리였어요. 대전공고에 함께 교사로 근무했던 후배교사 조용달씨(경도제대 재학중 해방후 귀국해서 서울공대입학, 졸업)의 목소리였어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더군요. 그런데 뒤를 보니 제자 장능수군이 앉아 수강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 충격은 대단해서 이절했습니다. 발뚎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으나 못시선이 쏠릴 것 같고 그래서 90분 강의를 「이왕 버린 몸」이라고 체념하면서 열심히 들었지요. 오히려 오기가 생

기는 것이었어요. 공과대 재학시절 회귀한 체험을 한 것도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1~3학년까지는 동숭동 캠퍼스에서 공부했는데 요새말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된 것이예요. 당시 11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서울대에는 서울대 단과대학학생회 연합회가 있었는데 11개 단과대 대의원들의 직선에 의해서 의장을 선출했지요. 정치지망생들도 많던 때라 이 연합회의장이 탐나는 자리였겠지만 정치에 전혀 관심없던 내가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공과대 학생회장이라는 힘을 입어서 당선된 것이지요. 독립 예산도 확보되어 있었고 그 권한이 대단한 시절이었습니다. 문리대학생회장으로 천관우씨가 있었어요. 정치연습장 같은 느낌이 들었던 당시, 의장을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들어 떨어뜨리려는 풍토가 싫어서 사임의사를 밝혔던 일도 있었으나 어쨌든 학도호국단이 창단되기까지 학생회장을 지냈어요. 이때 규칙발언, 긴급동의, 제의, 재개의 등, 회의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중구난방의 의견들을 멋지게 정리하는 회의진행방법을 터득해서 요즘도 잘 써먹고 있지요. 625 직전인 1950년 5월 12일에 졸업하고는 53년에 충남대가 설립되자 문리대 물리과 교수로 7년간 봉직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1960년부터 10년간 명지대교수로 봉직하시다 1970년에 서울 대성중고교를 설립하시고 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이 학교를 키우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중고교를 설립하신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으신지요.

대성중고교도 설립

공과대에 입학한 것도 솔직히 말하면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에서였지요. 공장 설립을 세 번했는데 모두 실패한 셈이지요. 그러나 공장을 경영하는 도중에 근검절약해서 집을 샀는데 무려 30번 이상이나 이사를 했어요. 낡은 집을 사서 수리해 팔았고 싼 땅을 사서 값을 남겨 파는 등 공장실패에 따른 재정적 손실

을 매꿔나갔지요 서울근교 토지가격의 상승과 틈틈이 투자한 게 재산증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문교부에서 중학교를 평준화시키면서 교실만 지으면 설립인가를 내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성중고교를 설립해서 10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자는 학풍조성에 교사 전원이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당시 강북에서는 S대 입학 1, 2위를 차지, 강북의 명문고교로 부상했지요. 요새는 강남에 시설과 환경이 좋은 학교들이 생겨서 좀 뒤떨어지는 느낌도 있으나 아직도 강북에서는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기독교 교회의 장로서 그리고 가족 모두가 독실한 교인으로서 신앙심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독실한 기독교 가족

50세 지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창기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도였으며 오래된 장로입니다. 사람마다 건강비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신건강에는 신앙의 뒷받침이 으뜸이고 두번째의 육체건강도 완벽한 정신건강에서 비롯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위장이 약해서 명절때만 되면 우울해지곤 했어요. 명절때 그 푸짐한 음식을 먹고 싶는데 먹었다 하면 배탈이 나고, 그래서 명절이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또한 자식들이 어릴 때 나를 무서워해서 잘 따르지를 않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안 무서워하고 잘 따르고 있어요. 더욱이 최근에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품에 잘 안기고 있어요. 예법을 잘 지키고 자손을 엄하게 다스리고 효도를 다하라는 가난한 충청도 선비의 기질 때문에 애들마저 소원한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개선됐어요. 내자(林恩愛, 72세)는 감리교 장로이고 장남(일구, 48세·호서대 신학과 교수)은 목사, 차남(철구, 46세·동우건축설계사 사무

소 소장)은 곧 장로가 될 것이고 3남(순구, 38세·미국 신학대학원 재학중) 등 3남 2녀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머지않아 3명의 장로, 2명의 목사가족이 되니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서울대출신의 수재로 인생역정을 신념과 패기, 그리고 곱힘없는 집념으로 살아오셨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심을 가족 모두와 그밖의 많은 분들에게 심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화중 선생님 스스로를 스스로없이 낮추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선생님 자신을 평하신다면...

"하면 된다" 좌우명

나는 결코 수재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아둔하다고 하는 게 알맞은 평이겠지요. 용감하지 못하다. 아둔하다는 평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지요. 우등 한번 못하고 성적이라야 고작 중간정도였지요. 시험에서 떨어진 경험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시험에서 자주 떨어지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 시험장에 들어가도 떨리거나 긴장되는 일이 없어졌어요. 자주 떨어지니깐 오히려 배심이 생기고 정신이 충충해져서 시험을 더 잘 보게 되더군요. 사람이 셋만 모여도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시골 태생이 교원생활을 거치면서 점점 입을 열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시험에 빈번히 낙방했다가 합격되면 그 승리감, 만족감이 더욱 더 대단하지요. 우리 호서대학교의 교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로 매우 간단합니다.

인간의 소질, 능력은 무한한데 이것을 발굴, 계발하도록 주위에서 도와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지요. 공자나 예수님께서서는 절대로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학교 교시도 성경말씀중에서 얻었습니다.

호서대에는 20여명의 명예교수가 있는데 학교운영의 특별한 방침은 무엇입니까?

명예교수만 20여명

우리 사회에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을 받아

들이는 자세에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온고는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부터 새것을 알아 옛것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의 미풍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늙게 마련이라는 진리를 망각하면 안되지요. 우리대학의 명예교수중에는 장관, 총장, 교수를 지낸 분이 대부분인데 강의도 열심히 하시고 후진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과학과 기술」지에서 '원로와의 대담'란을 마련해서 과학기술계 원로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해요. 나같은 사람이 이런 대담에 초대되었다는 게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온고의 참뜻을 되새기는 일에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선생님은 전기공학(상·하), 전기법규 및 시설관리 등의 저서를 출간하셨고 동일(東逸)출판사도 설립해서 전기계통의 양서를 출판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일출판사는 양홍석(전기학회 16대 회장), 남상린(전서울공대 교수)씨와 셋이서 만든 출판사인데 수익금에 전혀 손대지 않기로 약속하고 출발했어요. 직원 10여명으로 지금까지 전기계통 도서를 가장 많이 출판했지요. 그동안 2백여권을 출간했고 그밖에 30년 된 서울공과대학원, 마이콤학원, 편집학원, 직업훈련원, 2년과정의 전기기사 훈련원 등도 설립 운영하고 있어요. 이러한 학원과 중고교, 호서대를 합하면 대략 1만3천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셈이지요.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기관을 계속 육성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진실과 정성이 담긴 꾸밈없는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가족여러분께서 건강속에 복된 날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호서대학교가 명실공히 충남의 명문대학으로 우뚝 솟아 한국 과학기술 교육을 선도하는 요람이 되기를 독자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